『기독교사회윤리』 제44집
(2019) 271~303

서양선교사를 통해 이식된 기독교윤리사상* **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윤리문헌자료 활용을 위하여

오지석(숭실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 결이 다른 두 흐름

II. 서양 선교사를 통해 이식된 윤리사상의 흔적
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문헌자료 분류
2. 漢譯西學書와 韓譯西學書속의 서학윤리사상
3. 서양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의 저술 및 번역서에 나타난 윤리와 관련된 생각들(프로테스탄트의 윤리)

III. 나가는 말 - 아는 것과 보지 못한 것 사이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10

---

* 이 글은 2019년 4월 20일 日本一橋大學韓國學研究所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HK+사업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근대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모포시스 - 이문화의 수용과 갈등"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현장에서의 토론, 제안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 작성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www.kci.go.kr

• ABSTRACT •

A Study of Christian Ethical Thoughts through Western Missionaries: Soongsil University Korean Christian Museum in charge of Christian Ethics

Oh, Jie-Seok (Assistant Prof.,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Korean Christian ethics through the bibliographical approach to the Korean Christian Museum.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races of thoughts on inner ethics (Protestant ethics), to ask and answer what we know and what we do not see. How can we express the encounter between knowledge society in East Asia and Western ethics, especially Christian ethics? This question was not limited to the era of modern transition space, but was a concern for the missionaries who came to preach Christianity to East Asia since the 16th century, who had to convey their ideas through translation. They wanted to make Christian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octrine and education, to change their consciousness and attitudes, and to make achievements through direct and indirect communication. In this process, the aspects of cultural metamorphosis appear. In the Christian materials of the Korean Christian Museum, there were two different flows: East Korean traditional ethics and Western Christian ethics, and traced the Korean acceptance of Christian ethics. The scenes that emerged from the thought were summarized through document classification.

Key words: Christian Ethics, Ethics in the West, Modern Transitional Space, Metamorphosis in Culture, Translation, Transplantation, Korean Christian Museum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 결이 다른 두 흐름[1)]

한국의 지식사회는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이라는 날줄과 서양에서 건너온 철학사상이라는 씨줄이 얽혀져서 한 땀 한 땀 지식의 지형도를 그려나가고 있다.[2)] 이 씨줄에 해당하는 서양 사상이 한국 땅에 수용될 때 그 이유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첫째 새로운 사상이 기존의 사상 체계보다 수용자 측에 더 흡족하게 정신적 충족을 줄 수 있을 때, 둘째 새로운 문화가 그것을 수용코자 하는 민족이 갖고 있는 생활 체험과 부분적으로나마 공감할 수 있거나 연결될 때, 셋째 어떤 불만이 압도적으로 그 민족이나 사회의 구성원을 사로잡고 있을 때이다.[3)] 그렇다면 서양사상은 언제부터 어떤 흐름으로 한국사회에 소개되고 한국사회는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반응이 나은 메타모포시스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꼬리를 문다.

16세기 이후 기독교 문화와 서양의 자연학과 기술이 동아시아로 전래되어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과 만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16~17세기 동아시아는 서서히, 19세기부터는 급격히 변화했다. 그리고 근대전환경험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만 이뤄졌다기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특히 서양세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4)] 개항 전 한국 지식사회는 씨줄인 서

1) 이 표현은 글쓴이가 2018년 제1회 숭실대 HK+사업단 학술대회 〈메타모포시스 인문학〉에서 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에서 제5주제 사유와 사상 관련 박물관 소장 자료의 현황과 활용'이라는 발제에서 한국의 서양기독교사상의 수용 양상을 서학과 프로테스탄트의 등장이라는 면을 설명할 때 사용한 것이다.

2) 오지석, "동서 기독교 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 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2011), 201.

3) Homer C. Barett, *Innovation: The Basis of Cultural Change*, New York: McGraw-Hill, 1953. 곽신환, "신념체계의 대립과 갈등과 치유," 『기독교사회연구』 제3집 (2005), 89.에서 재인용.

4) 김승혜, 『동아시아 종교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만남』, (서울: 영성생활, 1999), p.20.

www.kci.go.kr

양사상과 직접 만난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김문식이 밝힌 대로 '燕行(연행사)', '海行(통신사)', '漂流(표류민)' 등의 경로를 통해 유입하였다.[5] 하지만 개항 후 한국사회가 개항 후 서양사상과 만남은 중국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랑캐라 여긴 洋夷와의 직접 만남과 倭라 불렀던 일본을 통한 경로를 통해서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결이 다른 두 흐름이라 한다.

이것을 기독교 사상에 적용하면 개항 전 조선인이 만날 수 있던 기독교 사상과 서양의 자연학과 기술을 西學(가톨릭에 기반한 조선유학이 만나 낯선 거울[6])이라 부르고, 19세기 동아시아의 개항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 사상(프로테스탄트)과 그들과 함께 온 자연학 또는 자연과학과 기술은 또 다른 西學 혹은 新學이라 부를 수 있다.

16세기 이해 줄곧 이어지는 서양사상과의 만남의 시초와 결이 다른 두 흐름에 대한 연구를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자료를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은 한국학에 있어서 서양문화의 유입과 그 수용과정을 잘 드러내 주는 곳이다. 특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유입과 그 수용과정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문헌을 통해 '서양 선교사를 통해 이식된 서양 윤리사상'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역사에 대한 선행연구로 강원돈의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어제와 오늘", 『신학연구 50년』(혜안, 2003)과 김창의의 『신학연구문헌학』(경인문화사, 1972), 김철영의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의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 (『장신논단』 vol.16, 1997), 노영상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학문적

5)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서울:새문사, 2009), 황종원 · 허재영 · 김경남 · 강미정,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지식과 사상』, (서울: 경진출판, 2019), p.12에서 재인용.

6) 이 표현은 김선희의 책 『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서학의 유입과 조선 후기의 지적 변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에서 따왔다.

www.kci.go.kr

정위"(『기독교사회윤리』 vol. 18, 2009), 맹용길의 『한국기독교윤리학 I , II』(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3, 1994), 박충구의 "기독교사회윤리 한국토착화신학"(『기독교사상』 35권 6호, 1991), 박충구의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성서연구사, 1995), 박해남의 "대한제국기 개신교 윤리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81호, 2008), 백종구의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교회사학』1권 1호, 2001),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의 『한국기독교와 윤리:생활속의 기독교윤리』(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오지석의 "한국기독교윤리학, 그 처음 이야기"(『기독교사회윤리』 vol.15, 2008), 오지석의 "동서 기독교 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 윤리사상"(『기독교사회윤리』 vol.21, 2011), 윤성범의 "기독교와 한국윤리"(『신학과세계』vol.3, 1977), 이장형의 "한국기독교 초기 윤리학교과서 문헌해제 및 한국적 수용과정 연구"(『기독교사회윤리』 vol.18, 2009)과 『기독교윤리학의 한국적 수용과 정립』(북코리아, 2016), 정하은의 『한국 근대화와 윤리적 결단』(대한기독교서회, 19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目錄:國內書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현영학외의 『한국문화와 기독교윤리』(문학과지성사, 1986)등 여러 편의 논문과 저술이 있고[7],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관련문헌에

7) 한국기독교윤리학에 대한 사적 흐름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강원돈, "1990년대 초 이래의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의 동향," 『신학연구』, 제51집 (2007), 김권정,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사회복음 수용과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16집 (2008), 김권정, "한국기독교 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 사회윤리 연구 : 월남 이상재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김권정, "근대전화기 윤치호의 기독교 사회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제22집 (2011) 김권정, "신석구의 기독교사회윤리사상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 (2012), 김귀성, "P. A Vagnoni 著『童幼教育』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교육문제연구』, 제35집 (2009), 김영일의 "정약용(丁若鏞)의 윤리사상(倫理思想)," 『기독교사회윤리』, 제7집 (2004), 박충구, "삼천년 대를 향한 기독교 윤리적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5권1호 (1998), 박충구, "한국교회의 기독교윤리학적 성향과 그 문제점," 『사회이론』 제35호 (2009), 박충구, "한국기독교의 윤리성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방적 영성적

www.kci.go.kr

관한 선행연구는 한명근의 "開化期(1876~1905) 신서적 발간과 그 특징", (『崇實史學』 20, 2007)과 한명근의 「예수교서회의 기독교문서 출판과 그 의의」(『근대의 기억, 신앙의 기록-예수교서회의 문서운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5) 그리고 한명근외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의 수용과 변용』(선인, 2019)과 한국기독교박물관의 간행물인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 자료해제』(2007),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도록인 『근대의 기억, 신앙의 기록-예수교서회의 문서운동』(2015)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들 선행연구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윤리관련 문헌들에 대한 서지적으로 자료 분류하고, 漢譯西學書와 韓譯西學書속의 西學倫理思想과 서양프로테스탄트선교사의 저술 및 번역서 속의 윤리에 관한 생각들(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과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답하면서 다양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윤리적 해석학 서설," 『해석학과 윤리』, 제3집 (1999), 설충수,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교 인성론(人性論) 연구 : 에른스트 파베르(Ernst Faber)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6집 (2016), 설충수, "띵광쉰(丁光訓)의 사랑의 신학 - 인신칭의(因信稱義)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 엄국화, "다산(茶山)의 '소사상제(昭事上帝)'와기독교 윤리에 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42집 (2018), 오지석, "한국교회 초기 혼인관에 대한 연구: 애니 베어드의 『고영규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12집 (2006), 오지석, "마테오 리치와 에픽테토스의 '엥케리이디온' : 동 · 서 윤리학의 만남의 자리," 『기독교사회윤리』, 제32집 (2016), 이장형, "한치진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사상계의 기독교윤리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24집 (2012), 이장형, "『신자생활의 첩경』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 (2014), 이장형, " 〈게자씨〉 (1933-1934)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윤리 담론,"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 이장형 · 안수강, "『그리스도륜리표준』에 나타난 인간 본분과 실천윤리," 『신학과 실천』 제41집 (2014), 최형묵, "민중신학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한국 근대화," 『신학논단』 제74집 (2013) 등이 있다.

www.kci.go.kr

II. 서양 선교사를 통해 이식된 윤리사상의 흔적

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문헌자료 분류[8)]

"책이 세상을 바꾸는가?"라는 물음은 인쇄술의 변천과 저작권의 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과학의 세기라 불리는 17세기도, 헤겔사상을 좌파적으로 읽어 내 사회의 변혁에 선두에 서게 된 카를 마르크스의 등장이 가능했을까? 근대적 인쇄술과 인쇄기의 보급, 책의 광범위한 유통은 한 개의 독서가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변혁을 주도하는 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였다.[9)]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사상들이 형성되듯이, 우리는 당대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 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고, 특히 책을 통해 만난 서양, 서양인 특히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지고 이식된 사유와 사상체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우리의 사유패턴과 생각이 변용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한국기독교박물관이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은 기독교의 수용과 성장 및 발전과정에서 양산된 다종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한명근은 근대관련 박물관 소장자료를 1) 기독교자료, 2) 국내에서 생산된 한국학 자료, 3) 외국인 시각의 한국학 자료, 그리고 4) 일제 식민통치 자료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기독교문헌자료는 성경, 찬송가, 신앙교리서, 주일학교 공과, 교회 회의록, 한국교

8) 이 부분은 한명근,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근대 자료의 내용과 성격," 한명근 외『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의 수용과 변용』(서울: 선인, 2019)을 기대어 정리하였다. 한명근의 글에 기독교관련 소장 자료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다. 소장자료에 대한 해제는『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자료 해제』(2007)를 참고하고, 문헌자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근대의 기억, 신앙의 기록-예수교서회의 문서운동』(2015)을 참고하라.

9)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와 근대서양의 재발견,"『한국사 시민강좌』37, (서울: 일조각, 2005.8) 267~268쪽.

www.kci.go.kr

회사, 기독교신문, 기독교잡지, 가톨릭(천주교) 자료로 추려 놓았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한국학 자료, 외국인 시각의 한국학 자료를 한국학 자료 가운데 개신교 선교사의 한국학 출판물, 한국인 저술의 외국어 출판물, 기타 선교단체의 영문출판물도 묶어 살펴볼 것이다.[10]

조선후기지식사회가 첫 대면한 서양사상은 중국에서 간행된 서학서(가톨릭 사상과 서양의 자연학과 기술 등을 담은 서적)들이었다. 박물관에는 초기 가톨릭 신앙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天主實義』,『畸人十篇』,『七克』,『眞道自證』,『敎要序論』[11],『盛世芻蕘』[12],『取譬訓蒙』(1870)[13],『天神會課』(1861) 와 소현세자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黃斐默의『正敎奉褒』(1904)[14] 등이 소장되어있고 최초의 근대 한글사전 또는 문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델(F. C. Ridel) 신부의『한불ᄌᆞ뎐韓佛字典 *Dictionnaire Coreen-Francais*』(1880)과『한불문전 韓佛文典*GRAMMAIRE COREENNE*』(1881), 방달지사 신부의 라틴어 사전인『나한자전*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1891)과 알레베크(C. Aleveque, 晏禮百) 편의『법한ᄌᆞ뎐 *Petit Dictionnatre Francais Coreen*』(1901,) 등의 사전류가 있으며, 로베르트 베버(NorbertWeber)의 한국방문 견문기 *IM LANDE DER MORGENSTILLE* (1915)와 파리 외방전교회의 *The Catholic Church in Korea*(1924) 등이 있으며, 한글로 번역된 천주교리서로『ᄉᆞ후묵상』

10) 한명근 외, 위의 책, p. 9~10.

11) 남회인으로 알려진 예수회 선교사 Verbiest, Ferdinand의 책이며, 18세기 조선에서 가장 유행한 천주교 교리서라 한다.

12) 여기서는『천학초함』의 기편에 해당하는 서학의 자연학과 기술관계문헌자료 소개는 생략한다.

13) 한역본은 서울대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한글번역 필사본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도 소장되어 있다.

14) 중국 북경 남당 신부로 있던 黃斐默가 쓴『正敎奉褒』(1904)에는 북경에 볼모로 있던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지구의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www.kci.go.kr

(1864), 『텬당직로』(1864, 1884), 『신명초힝』(1864) 등과 칠성사(七聖事) 교리서인 『셩교졀요』(1910), 신 · 구약 해설 및 가톨릭의 중국 傳教史를 서술한 『셩교감략』(1903), 개신교를 비판적으로 서술한 『예수진교ᄉᆞ패』(1907)와 한국천주교회의 장례에 관한 예식서인 『텬쥬셩교례규』(1914, IA1695), 그리고 한글 기도서로 1887년 『텬쥬셩교공과』(1887), 토마스 아 켐퍼스의 『遵主聖範』(1938) 등이다.

서양사상의 한 흐름은 이렇듯 초기 漢譯西學書, 韓譯교리서, 그리고 한글사전, 문법책, 견문기, 한국가톨릭교회사, 프로테스탄트와의 갈등 신앙생활지침서, 교양서 등으로 서양의 종교 가톨릭이 이식되는 과정이다. 박물관에 소장된 가톨릭 관계 문헌들이 유일하다기보다는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16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가톨릭을 통해 사상의 전이가 근대전환공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가를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조선은 海禁에서 海防으로 그리고 開港으로 변하였다. 19세기는 유학이 전통적 세계관이자 지배이데올로기로 작동하던 끝자락이면서 외부에 의한 근대화에 따른 극적 변화의 기미가 보이던 시대이다. 더이상 전통적인 화이론華夷論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서양이라는 새로운 오랑캐가 등장했다. 중국과 조선의 지식사회는 전 시대와 다른 방식으로 화이론의 균열과 해체를 경험한다. 단순한 선교와 과학기술 전달에 그치던 서양세력이 이제는 전통적인 세계관으로 대처 할 수 없는 타자로 서있다.[15] 이때 한국지식사회가 만난 서양사상은 16세기부터 만나온 서학[16]과는 다

15) 김선희, "7장. 19세기 지식장의 변동과 문명의식 – 홍한주, 이규경, 최한기를 중심으로," 미야지마 히로시 · 배항섭 · 이경구 엮음,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 (서울: 너머북스, 2017) 227~233쪽 참고.

16) 김선희는 19세기와 전시대의 서학이해의 결정적 차이를 '서양에서 온 지식'의 성격이 아니라 '서양이라는 존재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서학을 학술적 자원으로 활용했던 18세기 지식인들은 서'學'이 아니라 '西'학과 '西'양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같은 글, 234쪽.

www.kci.go.kr

르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용어의 번역에 따른 변용이 없는 사회였던 조선을 번역과 번안이라는 고민을 가져다주었다. 선교를 위해 한국에 도래한 서양 기독교(가톨릭, 러시아정교회, 프로테스탄트)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한글 시험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을 만들어 문법책을 쓰고, 한국어 교본을 통해 한국지식사회에 다가서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을 하고, 신문, 잡지를 발행하고, 한국인들의 도움을 통해 번역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양의 종교,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이식하였다. 박물관의 프로테스탄트 관련 문헌자료(중국간행한문서적, 조선주재 선교사들이 번역한 서적, 한국인들이 번역한 문헌, 개화·계몽기 교과서, 다양하게 생산된 한국학관련 책들)에서 그 흔적을 들여다 보려한다.

한국 프로테스탄트 초기 신앙서적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성교서회와 上海美華書館과 廣學會[17]에서 한문으로 간행한 서적[18]들이 대부분이었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1872년에

17) 중국에서 서양서의 번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본격화 되었다. 중국은 '강남 제조국' 내의 번역관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서양 서적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1870년대 전후 중국에서는 서양 실용서 중심의 번역이 진행되었고, 1874년 상해에 격치서원이 창설되면서 서양 지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 격치서원은 영국 선교사 프라이어(중국명 傅蘭雅)와 중국인 서수 등이 창설하였다. 특히 1887년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廣學會(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for China)는 중국 상해에서 해관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하트(赫德), 윌리엄슨(慕維廉), 리처드(李提摩太) 등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 정치, 철학, 법률, 교육, 천문, 역사, 물리, 화학, 의학 등의 서적을 지속적으로 번역 만든 일종의 번역 출판 기구이다. 이 단체의 전신은 1884년 설립된 同文書會이며, 1890년부터 1911년까지 약 400여 종의 서적을 출판하였다. 황종원·허재영·김경남·강미정,『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 지식과 사상』, (서울: 경진, 2019), 36~41쪽 인용과 참고.

18) 박물관 소장 중국 간행 근대학문 서적들은 영국인 선교사 존 프라이어와 에드킨즈, 미국인 선교사 마틴 등이 중국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며, 근대과학지식 전파를 목적으로 간행한 입문서 성격의 자연과학기술 분야 내용이 많다. 이 책들의 상당수는 "○○須知"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것들이고 에드킨즈와 마틴이 중국 북경에서 발간한『中西聞見錄』第1~36號(1872~1875, 총 18책)과 존 프라이어가 1876년부터 상해에서

www.kci.go.kr

발간된『神道總論』卷1을 비롯해『依經問答喩解』,『禮拜模範』,『耶蘇教官話問答』,『眞道入門問答』,『約瑟傳;官話』,『天道溯原』,『喩道要旨』,『神人合解(全)』,『聖學入德門』,『安仁車』,『牧師之法』,『安息日論/二約釋義叢書[合綴]』등이다. 또한 한국 프로테스탄트 초기 국내에서 발행된 신앙교리서와 교리문답서는 조력자들과 선교사들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거나 저술되었다. 1894년 이후 1910년까지 간행된 대표적인 초기 신앙서로는 1894년 그리피스 존이 저술하고, 언더우드가 번역 간행한『셩교촬리(聖教撮理)』와 1907년 매킨지가 지은 것을 사무엘 마펫이 번역해 대한셩교서회에서 펴낸『구세진전(求世眞傳)』(1907)을 비롯해 11점이 있다. 또한 교리문답서로는 독일인 나스트가 저술하고 매클레이가 한문본인『依經問答喩解』을 다시 올링거가 한글로 옮긴『의경문답』(1893)을 비롯해 12점의 교리문답서 등이 있으며, 초신자와 어린이를 위한 교리문답서『어린아희문답』(1915), 1916년 개정판『예수교초학문답』(1916, 1920, 1922, 1931, 1934)등이 있다. 기독교생활윤리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지침서[19]로는『덕혜입문(德慧入門)』(1915),『만ᄉᆞ셩취(萬事成就)』(1916), 칠극보감(1918),『人生問題와 그 解決』(1934),『금쥬미담』(1923),『酒草戒言』(1923),『예수의 교훈과 신자의 의무』(일제강점기),『보비로온말』(1916), 하ᄂᆞ님의 돈(1919),『信徒快樂秘訣』(1927),『리가요록(理家要錄)』(1911),『혼례셔』(일제강점기),『혼인론』(1914),『교인의 혼례론』(1922),『가뎡필지』(1923),『基督教社會思想』(1926)등이 있다. 그리고 교회사와 성경지리에 관한 서적으로『누터기교긔략』(1908)을 비롯해 7점이 있으며, 예수의 생애를 다룬 서적은 1896년에 발간된『북음요사』를 비롯해 9권이 있으며,

---

『中西聞見錄』을『格致彙編』으로 개명해 1890년까지 발간한『格致彙編』(1876~1881, 총 33책)를 비롯한 서양과학기술, 의학 책등이다.

19) 이 부분은 3. 서양 선교사의 저술 및 번역서 속의 윤리와 관련된 생각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www.kci.go.kr

1895년 존 번연의 원작을 게일이 번역하고 김준근이 삽화를 그린 『텬로력뎡』권지일, 권지이 등을 비롯한 번역소설로 밀러 · 김동극 공역의 『第四博士』와 선교경험이 토대가 된 창작 소설 *The Vanguard - A Tale of Korea* (1904) 『샛별전』(1905), 『고영규전(高永規傳)』(1911), *Daybreak in Korea* (1909), *KIM SU BANG : And Other Stories of Korea* (1909) 등이 있으며 성공회와 안식일교 등의 문헌들도 다수있다. 한국인 단독 편서, 번역서와 저술서로는 『셩신츙만』(1911, 韓承坤 編), 『七克寶鑑』(1918, 宋麟瑞 譯), 『도가부인요람』(1921, 金相卨 編), 『예수 生活의 硏究』(1926, 康雲林 譯), 『산샹보훈연구』(1929, 康雲林 · 金弼秀 · 吳天泳 譯註), 『宗敎와 個性』(1929, 李承根 著), 『聖潔을 쉽게 아는 길』(1931, 이명직 著), 『一千九百年 後의 예수(前篇)』(1932, 柳澄基 譯), 『求世軍敎理 便覽』(1933, 朴駿燮 編), 『基督敎의 眞髓』(1933, 柳澄基 譯), 『先知者와 메시아 道理』(1936, 吳宗德 著), 『聖經史話大集』(1940, 金弼禮 譯), 『主祈禱講話』(1942, 金在俊 譯) 등이 있고, 5) 신앙서적으로 언더우드(元杜尤)의 『우리 하나님과 그의 創造하신 宇宙』(1911)와 베어드(裵緯良)의 『명심도』, 『이긔ㄴ 、ㄴ 생명』을 비롯해 61점이 있다. 또한 『만국주일학교 공과』를 비롯한 주일학교 공과와 『교사량셩 쥬일학당 교과셔』(1909) 등의 주일학교 관련 문헌들과 안식일학교 교재, 당회록, 노회록, 총회록 등도 다수 있다.[20]

내한 선교사들은 효과적으로 선교하고자 잡지를 발간하였다. 단순히 선교사들 상호의 의견교류에 그치지 않고, 신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선교사들은 잡지를 통해 서구 근대문물을 소개하는 역할도 담당했고, 한국을 이해하고 연구하며, 알리고자 했다.[21] 선교

20) 그 외 한국교회사 관련 자료와 한국인이 발행한 기독교신문과 기독교 잡지등의 자료는 앞의 한명근의 글을 참고하라.

21) 육영수는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 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년대-1890년대" (『역사민속학』 제55호, 2018)에서 이와 같은 연구들이 '조선을 아는 것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19세기 후반에

www.kci.go.kr

사들이 국내에서 영문으로 발간하고, 또한 학술 활동을 한 내용을 담아낸 것과 뉴욕에서 발간된 친일계 잡지, 중국 침례교에서 발행한 잡지, 중국 광동에서 발행한 중문학 영문 월간지등도 소장하고 있는 데 목록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n Repository(1895.1.~1897.12.) *The Korea Review* (1901.1.~1906.12.), *The Korea Mission Field*(1911.3.~1941.2.), 『大韓』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 · II · III(1900~1903), 『朝鮮』 Vol.4~30.(1912~1940), *The Korea Bookman* (1920.1.~1924.12.), *The Japan Magazine*(1921~1930), *The New East* VOL. XI NO.2(1916~1932), *The Chinese Repository*(1943), *The Oriental Review*(1912.9.)

1880년대에 이르면 서양식 연활자가 도입된다. 이 일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을 상징적으로 촉발시킨 사건이다. 달리 말해 근대 인쇄기술을 통해 신서적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신서적은 "서구사조를 직 · 간접적으로 소개한 서적 또는 그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 · 보급된 서적 일반 · 보급된 서적 일반"[22]을 뜻한다. 이것은 조선에도 필사나 목판인쇄에서 벗어나 지식의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23]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정부 주도의 근대적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근대학문 교과서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양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한국학의 발명 · 전파 · 국제화 과정과 이 작업에 동반된 제국주의의지와 욕망을 비판적으로 보려고 한다.
이덕주는 서양인들의 한국학 관련 저술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창窓'이 되었고, '한국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으며,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이덕주, 『푸른 눈에 비친 백의민족』,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2008).

22) 李鍾國, "韓國의 近代印刷出版文化硏究", 『印刷出版文化의 起源과 發達에 관한 硏究論文集』, (서울: (사)한국출판학회, 1996), 81쪽.

23) 박천홍, 『활자와 근대-18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 (서울: 너머북스, 2018), 10쪽.

www.kci.go.kr

1895년 학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과서인 『國民小學讀本』을 간행하였다. 학부편집국은『태서신사남요』,『공법회통』,『지구약론』,『서례수지』 등을 비롯해 다수의 漢譯西洋書를 복각하여 교과서로 활용하거나 한글로 번역하여 근대학문교과서 간행과 보급에 힘을 쏟았다. 내한 선교사들은 개화기와 1900년대에 들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발행하였다. 수학, 천문지리학, 동식물학, 생리해부학, 물리화학, 자연과학 일반 등 근대학문 분야의 교과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교과서 대부분은 근대인쇄술인 연활자본이고 1906년 제중원에서 발행한 해부학과 생리학 같이 학문 유입이 늦은 일부 교과서는 등사본으로 간행되기도 했다.[24] 박물관 소장 교과서로는 기독교계 교과서로 1894년 스크랜튼 선교사 번역한 『地璆略論』을 필두로 헐버트의 『四民必知』(1895), 1899년 이화학당에서 펴낸 한국 최초의 생리학 교과서『젼톄공용문답』(1899), 평양 숭실 설립자 베어드 선교사 부부가 번역하여 교과서로 펴낸『동물학』(1908),『싱리학초권』(1908),『식물도셜』(1908),『텬문략히』(1908)가 있다. 학부편집국에서 복각하고 번역하여 간행한 프라이어 선교사의『西禮須知』(1902)와『태셔신사 상 · 하』(1896~1897) 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인문과학(10종), 역사(7종), 수학(14종), 천문지리학(17종), 동식물학서(9종), 생리해부학서(17종), 물리 · 화학(9종), 자연과학 일반(12종), 군사학(5종)의 근대교과서가 있다. 그밖에 서양학문이 유입되면서 다종다양한 학문분야의 저술되거나 번역된 단행본과 중국과 일본에서 유입된 단행본들은 근대전환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25] 박물관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조선에 체류했던 서양인의 시각(가톨릭 · 프로테스탄트 선교사 포함)에서 바라본 한국학에 관

24) 한명근, 앞의 글, 66~67쪽, 강미정 · 김경남, "제2부 제1장 근대 계몽기 한국에 수용된 중국 번역 서학서", 황종원 · 허재영 · 김경남 · 강미정, 위의 책, 55쪽.

25) 자세한 목록은 한명근, 앞의 글, 68~76쪽을 참고하라.

www.kci.go.kr

련된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들(일기, 편지, 리포트, 소설, 역사서, 번역서, 지방언어와 사전 문법책, 민속풍습 연구서 등)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방인의 한국학 또는 한국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26]

2. 漢譯西學書와 韓譯西學書속의 서학윤리사상

가톨릭 윤리신학은 16세기에 교의신학에서 분리되어 독립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 배경에는 당시 개혁교회(프로테스탄트)들은 오로지 신앙만을 강조하였는데 가톨릭교회는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삶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차별을 두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윤리신학이 발전했고, 교회의 신앙생활과 성사생활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

26) 박물관 소장 한국학 관련 대표적 외국인 텍스트들은 다음과 같다.
John Ross, *Corea, Its History, Manners and Customs* (1880); William E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1904); J. S. Gale, *Korean Sketches*(1898), *Korea in Transition*(1909), T*he Cloud Dream of the Nine*(1932); H. N. Allen, *Korea: Fact and Fancy*(1904), *Things Korean*(1908); H.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1908),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1910); E. J. Urquhart, *Glimpses of Korea*(1923); James Earnest Fisher,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1928); H. B. Hulbert), *Omjee The Wizard; Korean Folk Stories*(1925); Nathaniel Peffer, *The Truth about Korea* (1919); F. A. Me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1920).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Catalogue of Korean Publications*(1921), *List of New Books* (1904), *Annual Report*(1915 · 1917 · 1919~1927 · 1929 · 1931~1938).
British & Foreign Bible Society Report of the Korea Agency for 1928-1931·1934-1936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1903, 1904)
James Scott, 『한국문법 A Corean Manual』(1887), 『英韓字典』(1891); H.G. Underwwod,『韓英文法』(1890),『鮮英文法』(1914), 『韓英字典』(1890), 『英韓字典』(1890); J.S.Gale,『辭課指南』(1894, 1916), 『韓英字典』(1897); G. H. Jones, 『韓英字典』(1912); W.M. Baird, 『英韓 · 韓英字典』(1928); Hulbert, *A Comparative Grammer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Dravidian Languages of India* (1905); A. L.A. Baird,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1926)

www.kci.go.kr

당시 윤리신학은 신앙인의 '신앙생활과 생활 규범', '덕행과 악행'을 다루면서, 도덕 생활을 하느님(하나님)께 향하는 영적 순례로 이해했다.[27]

16세기 말 동아시아로 파송된 예수회 선교사들은 단순히 서양기독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중국보다 발전된 르네상스 시기의 자연학과 기술 등도 전한다. 중국 진출이후 수 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이루어진 예수회의 지적, 종교적 도전의 결과를 서학[28]이라고 하고 그들의 학문 활동 과정과 결과가 漢譯西學書이다. 漢譯西學書를 통해 서양 선교사가 이식한 서양 윤리사상의 흔적을 살펴보자.

서학윤리사상은 가톨릭 윤리신학[29]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동아시아 사상과의 만남을 통해 중국과 조선에 펼친 윤리사상이다. 달리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미즘의 후예이며[30], 성리학과의 만남을 통해 변용된 윤리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31]

박물관소장본 漢譯西學書[32] 가운데 윤리사상을 담고 있는 것은『天主

27) 심현주,『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 (왜관: 분도출판사, 2009), 7~8쪽.

28) 김선희,『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서학의 유입과 조선 후기의 지적 변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15.

29) 윤리신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톨릭의 전통에 표기한 것이다. 윤리신학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도덕신학Theologia Moralis'에서 왔고, 이때 부터 '도덕'과 윤리'가 동의어로 사용되었고, 키케로가 '도덕철학 Philosophia Moralis'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어 에토스의 의미였다. 그 후 도덕과 윤리는 서로 뒤 섞여 사용되면서, 어원만 다를 뿐 동의어로 인식되어 왔다. 심현주, 위의 책, 26 쪽

30)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분류에 따라 사변적 철학(자연학, 수학, 형이상학, 신학 등)과 실천적 철학(윤리학, 가정학, 정치학)으로 나누었고, 실천적 학문(철학)의 고유함을 "인간적 행위들을 행위들 상호간의 질서와 목적과의 관계되는 측면에서 다루는 데"있다며, 윤리철학을 monastia(개별윤리학, 한 인간의 목적으로 정향된 행위들을 고찰하는 것), oeconomica(가정윤리학, 경제학, 가정 공동체의 행위를 고찰하는 것), politica(정치학, 국가 공동체의 행위를 고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박승찬,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에 대한 중세의 비판적 수용-토마스 아퀴나스의 주해서를 중심으로,"『중세철학』제9호 (2003), 150~154쪽.

31) 오지석,『서양기독교의 주체적 수용과 변용-갈등과 비판을 넘어서』, (고양: 푸른영토, 2018) 180쪽.

32) 박물관소장 한역서학서는 중국에서 간행한 것과 그것을 번역하여 한글 필사본으로

www.kci.go.kr

實義』, 『七克』,과 신앙생활서라 할 수 있는 『敎要序論』, 『盛世芻蕘』가 있다. 그리고 韓譯西學書로는 『텬당직로』, 『셩찰긔략』이 있고, 한글서학서는로는 『류한당언행실록』, 『쥬교요지』, 『遵主聖範』이 있다.

〈표 1〉 漢譯西學書(서학윤리사상)[33]

No.	서명	저자	간행년도	출판·인쇄소	비고
1	『天主實義』	利瑪竇 Mateo Ricci	1935, 6판	土山灣印書館	
2	『七克』	龐迪我 P. Pantoja	1917	京都始胎大堂	
3	『敎要序論』	南懷仁 F. Verbiest	1669?		
4	『盛世芻蕘』	憑秉正 De Maila	?	?	

유통하거나 목판본으로 발간한 것 그리고 연활자본으로 인쇄한 것으로 그 인쇄방법이 바뀐다. 그 과정 또한 근대공간으로 문화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3) 『天主實義』, 『七克』에 관한 소개와 연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敎要序論』과 『성세추요』에 관한 소개와 연구는 드물다. 『교요서론』에 대한 연구는 노용필이 번역해 출판한 2013년 『교요서론: 18세기 조선에서 유행한 천주교 교리서』(한국사학)이 있으며, 『盛世芻蕘』에 관한 연구는 원재연, 「성세추요(盛世芻蕘) Ⅰ, 『부산교회사보』제35호, 부산교회사연구소, 2002.7, 원재연, "정조대 처사 홍정하의 천주교리서 비판과 천주교 인식," 『동국사학』 제64호 (2018). 원재연, "조선후기 천주교 서적에 나타난 '良知說'에 대하여," 『양명학』 제20호 (2008).

『敎要序論』은 벨기에 출신 예수회 선교사 베르비스트(南懷仁)가 지은 가톨릭 교리서이다. 숭실대 소장본은 1669년 중국 북경에서 간행된 초간본으로 추측된다. 이 책은 초기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천주의 상벌에 대한 생각은 후에 다산과 그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6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盛世芻蕘』는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 마이야(憑秉正)가 지은 한문 교리서이다. 이 책은 소원편(溯源篇), 구속편(救贖篇), 영혼편(靈魂篇), 상벌편(賞罰篇), 이단편(異端篇) 등 모두 5편으로 구성된 대중적 교리서이자 호교론서이다. 1733년 북경에서 초간된 이후 여러차례 간행 보급되었으며 1733년 북경에서 5권으로 간행한 후 여러차례 간행 보급되었다.

www.kci.go.kr

〈표 2〉 韓譯西學書(서학윤리사상)[34]

No.	서명	저자 / 역자	간행년도	출판·인쇄소	비고
1	『텬당직로』	안안도니 편역 Daveluy	1864	천주교회	1884년 연활자본
2	『텬쥬셩교예규상권』	안안도니 편역 Daveluy	1896	?	
3	『셩찰긔략』	안안도니 쟝시메온 감준	1864		연세대학술정보원, 서강대도서관

〈표 3〉 한글서학서(서학윤리사상)[35]

No.	서명	저자	간행년도	출판·인쇄소	비고
1	『류한당언행실록』		1935, 6판	土山灣印書館	
2	『쥬교요지』	정약종 박요왕 감준	1885 중간		목판본
3	『遵主聖範』	Thomas, à Kempis 오삭조	1938	덕원분도수도원	

34) 『뎐당직로』는 전해진 시기나 누가 번역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1864년 필사본으로 전해오다가 1864년 서울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1884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블랑 부주교의 감준으로 간행되었으며, 1900년, 1915년 민 아오스딩 주교의 감준으로 간행된 신앙서적이다. 본문내용 가운데 천당으로 가기 위한 방법과 은총론을 제시하고 있는 데, 常生(永生)을 얻으려면 공을 세워야하는데 선한 일, 선한 뜻, 천주의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성악설 입장에서 악한 인간의 본성을 은총을 통해 순화시키려 하는 은총론에 주목할 만하다.
『셩찰긔략』 은 1864년 다블뤼 주교가 저술한 고해성사 준비를 위한 성찰서이며 윤리신학서이다.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에서는 1864년, 1882년, 1890년 판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riss 엔진에서는 1890년 판본 소장처로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정영아,"일본문학(日本{文學}),일본학(日本{學}): 소창문고본(小倉文庫本)「천주십계(天主十₩戒)」 필사의 배경 -「셩찰긔략」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5권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가 있다.
35) 최근 위작에 대한 논의가 나오며, 천주교의 윤리사상이 녹아있지 않고 그 당대의 내훈

www.kci.go.kr

서학의 윤리사상은 유교의 인간 중심적 윤리 방향과 관습에 대해 기독교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서학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神 중심적 윤리관으로 방향전환이다. 기독교윤리사상은 특징인 인간의 윤리적 행동의 근거를 '신의 명령', '신의 보상'에서 찾고 있다. 서학서들은 비록 유교의 용어와 범주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빤또하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해야 하는 이유를 '보상'과 연결해 제시한다. 유학자들의 입장은 '보상'과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빤또하는 유학자들의 이러한 입장, '유교가 보상에 무관심하기때문에 선을 행해야한다는 백성들의 의지를 실제로 약화시켜왔다'고 비판한다.[36]

같은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류한당언행실록』은 서학의 전래시기와 근대전환 공간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주교요지』는 정약종(丁若鐘)이 저술한 교리서이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지은 최초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저술연대를 알 수 없으나 1800년 필사본이 있고, 정약종사후에 이 본을 저본으로 삼아 여러 판본이 만들어졌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되어있고, 상권은 하나님 존재 증명과 기본교리, 도교와 불교에 대한 비판, 사후의 상벌, 영혼의 불멸을 밝히는 일종의 호교서(護敎書)성격을 띠고 있고, 하권은 하나니의 천지창조, 아담의 원조, 예수의 강생과 구속, 부활과, 재림과 심판 등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교리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책은 한국 천주교 교인에 의해 저술된 최초의 교리서이며 한국천주교 사상과 윤리관의 전통이 형성되는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국기독교박물관편,『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기독교자료해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402쪽.

『遵主聖範』은 라틴어로 씌어진 15세기의 신심서(信心書)이며, 저자는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 1380~1471)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그리스도 교인 생활의 기본원리들을 명백히 밝혀 주는 영신지도서로서 교회 신심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일찍부터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냐시오(Ignatius de Royola)의『영신수련』에 이용되었고, 또 17세기에 일어난 프로테스탄트의 경건주의(敬虔主義, pietismus)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선교사들이 한역(漢譯)한『경세금서(經世金書)』,『遵主聖範』이 전해져 두 책 모두 한글로 번역 필사되었고, 1938년 연길교구 소속 오삭조(吳朔朝, 요셉) 신부가 라틴어 원본을 번역한『준주성범』이 간행되었으며 그 뒤 1954년 윤을수(尹乙洙) 신부가 새로 번역한『준주성범』이 경향잡지사에서 간행되어 현재까지 널리 읽히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서 다음 많이 읽히는 책이다.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3294&keyword=&gubun=01

36) 오지석, "동서 기독교 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 윤리사상",『기독교사회윤리』제21집

www.kci.go.kr

정조시대 洪正河는 『盛世芻蕘』에서 다루는 서학윤리사상을 『盛世芻蕘證疑』에서 평등사상에 입각한 일부일처제 주장을 비판하고, 천주대군대부설, 제사무용론에 대해 강상에 입각해 비판한다.[37] 그 또한 가톨릭의 윤리사상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십계명과 산상수훈등을 유럽의 얀세니즘과 합유론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윤리서[38]에 근거하여 윤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특히 한역서학서를 통한 축첩제 금지, 혼인 관계와 방법의 변화(개가허용, 자유혼인, 신자간의 혼인, 동정생활), 그리고 형제애에 대한 제시와 교육은 성리학 중심의 세계를 흔든 것이다.[39]

서학서들을 연구하고 호교론을 펼친 정하상은 「上宰相書」에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이식된 서양 윤리사상을 유교의 언어로 주장한다. "천주교가 강상명교(綱常名敎)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유교적 입장에서 평가한 것일 뿐, 천주교는 '10계명'을 통해서 충효(忠孝)의 윤리를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고,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벗과의 신의(信義, 朋友有信)를 강조하고 있으며, '칠극(七克)' 등을 통해서 인격수양에 필요한 근면, 겸손, 절제, 관용 등의 덕성(德性)을 함양하도록 교훈을 주는 학문이므로 유교와는 다른 윤리도덕 체계를 갖춘 '강상명교'라고 할 수 있다.[40]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조선사회 안에서 건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윤리 규범을 제시하고자 했던 안안도니 신부는 1864년 『셩찰긔략』을 펴낸다. 이 책의 서에서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 기준과 양심을 성찰하는 태도와 방법 등을 소개하고, 본문에서는 천주십계(신자로서 경

(2011), 222쪽

37) 원재연, "정조대 처사 홍정하의 천주교리서 비판과 천주교 인식," 『동국사학』 제64호 (2018), 183.

38) 『천주십계』, 『셩찰긔략』 등의 韓譯西學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9) 오지석, "한국기독교윤리학, 그 처음 이야기," 『기독교사회윤리』 제15집 (2008), 219.

40) 원재연, 같은 글, 201~202.

www.kci.go.kr

계해야 하거나 지켜야 할 일), 성교회사규(천주교회에서 정하는 교리적인 신앙행위를 위반하는 죄), 칠죄종(인간이 지을 수 있는 7가지 죄-교오, 간린, 미색, 분노, 탐도, 질투, 해타)를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한다. 이런 노력은 가톨릭 윤리신학의 이식이라 볼 수 있다.[41]

3. 서양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의 저술 및 번역서에 나타난 윤리[42]와 관련된 생각들(프로테스탄트의 윤리)

開港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외교관, 의사 혹은 교사 등 전문가 신분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아카이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초기 선교사들의 자료들에 대한 수집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43]을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다. 이 시기의 자료들은 근대전환공간에서 서양프로테스탄트 윤리사상의 이식과 변용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종구에 따르면 초기 개신교 문헌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윤리는 세 가지 특징, 첫째 성경적 규범(십계명, 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둘째, 기독교 신앙의 공리성(서구 사회의 문명의 진보가 기독

41) 신하령, "「셩찰긔략」",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자료해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392쪽.

42) J. M.구스타프슨은 『신교와 구교의 윤리』(김희섭 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9쪽에서 "신교의 목사는 구교 도덕신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세련되고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문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교 목사 스스로가 양심의 판단자도 행위의 심판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 신교에 있어서 윤리에 관한 연구 서적의 기능은 율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교육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기독교문헌자료 가운데 윤리사상에 관한 것으로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 도움이 된다.

43) 이 분야에 대한 연구로는 장윤금,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4호 (2013)와 한미경 · 장윤금, "개신교 교육 선교사들의 편지(1885~1942)-북미 기록관 소장 현황," 『人文科學』 제111집 (2017) 등이 있다.

www.kci.go.kr

교와 관련 있다는 생각) , 그리고 전통종교에 대한 이중적 시각(성경의 규범과 전통윤리사상-충효, 일부일처제의 혼인 등 연결)을 나타낸다.[44] 박해남은 「대한제국기 개신교 윤리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 선교사들이 전한 개신교 윤리는 자신들이 지켜왔던 윤리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1897년 프로테스탄트교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가족윤리의 준수, 금욕과 절제, 성실한 노동 등이었다. 선교사들은 선교의 열매로 음주, 흡연, 제사, 조혼, 축첩 등의 관습을 버리고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고하였다.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윤리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면 교인의 자격을 주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인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45] 이것은 이른바 洋夷가 자신들의 윤리사상을 이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기독교 문명론'의 입장에서 조선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서양 사회를 모델로 한 기독교 문명의 건설이라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회심(기독교화)과 문명화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위생과 게으름 등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면서 엄격한 청교도적인 신앙만 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인 신자들에게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죄악으로 여기고 언제나 금욕적이면서 도덕적인 생활 태도만을 고수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또한 음주, 도박과 더불어 흡연을 조선의 악습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을 통해 생활 습관과 의식을 개조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새로운 삶의 질서, 새로운 사회 원리, 새로운 윤리의 도입을 통해 문명개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했다.[46]

---

44) 백종구,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 『교회사학』 제1권 1호 (2001), 118~120쪽.
45) 박해남, "대한제국기 개신교 윤리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제81호(2008), 6~7쪽.

www.kci.go.kr

19세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프라이어 선교사의 『西禮須知』, 장로교 목사인 송인서가 번역한 『칠극보감』을, 선교사와 한국인의 혼인론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 평양 숭실의 교재 등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문헌자료들을 통해 새로운 윤리사상의 이식 과정을 추적해보자.

〈표 4〉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의 저역서[47]

No.	서명	저자	간행 년도	출판 · 인쇄소	비고
1	『天道溯原』	丁韙良 W.A.P. Martin	1893 重定印	中國聖教書會	연세대 학술정보원/
2	『西禮須知』	傅蘭雅 John Fryer	1902	학부편집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3	『서례슈지』	학부편집국 편	1902	학부편집국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4	『리가요록(理家要錄)』	閔老雅 F. S. Miller	1911	예수교서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5	『고영규젼』	安愛利 A.L.A. Baird	1911	조선예수교서회	
6	『하ᄂᆞ님의 돈』 *The Lord's Money*	美羅, 김태진 공역 L.A. Miller	1919	조선예수교서회	

46) 조현범,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서울: 책세상, 2005) 114쪽, 136쪽, 143쪽, 157쪽 참조와 인용.

47) 『天道溯原』은 정위량((W. A. P. Martin)이 저술하고, 1893년 중국성교서회, 미화서관에서 발행한 신앙교육서 또는 변증서이다. 특히 기독교와 유교의 관계에 대해 기술한 서적이다. 유교의 성선설과 기독교윤리를 접목해 설명하고자 한다.

www.kci.go.kr

7	『교인의 혼례론』	C. Ross	1922	조선예수교서회	
8	『가뎡필지』	虞國華 E.J.Urquhart	1923	時兆月報社	
9	『酒草戒言』	奇一 J.S. Gale	1923	조선예수교서회	광신대학교도서관
10	『基督敎社會思想』 *The Social Idea of Christianity*	梅道挪 D.A.McDonald 최상현, 김관식 공역	1926	대한기독교서회	
11	『人生問題와 그解決』	尹山溫/양주동 역 G.S. McCune	1934	崇實專文學校	경상대학교도서관

〈표 5〉 신앙교리서

No.	서명	저자	간행년도	출판·인쇄소	비고
1	『依經問答喩解』	William Nast H.Liebhart	1880	福州美華書局	이화여대 도서관/연세대학술정보원
2	『耶穌敎問答』		1887	中國聖敎書會(美華書館)	
3	『의경문답』	William Nast 茂林吉 F. Ohlinger,	1893		연세대학술정보원
4	『셩교촬리』	양격비 Griffith John 元杜尤 H.G. Underwood	1894	죠션셩교서회	연세대학술정보원/장신대 도서관
5	『구세론』	馬布三悅 S.A.Moffett 최명오 공저	1895		연세대학술정보원/장신대 도서관
6	미이미교회문답	趙元時 저 G.H. Johnes 孟皓恩 역 F.J.S. Macrae	1896		장신대 도서관(1902)

www.kci.go.kr

7	『위원입교인규됴』	馬布三悅 S.A.Moffett	1898, 4판		爲願入敎人規條(1895) 장신대 도서관
8	『예수교문답』	네비어스 부인 H.S. Nevius 元杜尤 H.G. Underwood	1901	삼문출판사	연세대학술정보원(1894,1896,1918년 본) 장신대 도서관(1894, 1918년 본
9	『감리회문답』	奇義男 W. G. Cram	1911	조선 예수교서회	감리회쇼년문답(1909) 연세대 학술정보원 감리회문답(1908) 연세대학술정보원
10	『미감리회강령과 규측』	奇怡富/최명화 공역 E.M. Cable	1911	교문관인쇄소	
11	『간략ㅎ、ㄴ 시험』	巴禹 주교	1913		러시아정교회자료
12	『고등문답』	彼得 Alex A. Pieters	1914	조선 예수교서회	
13	『예수교의문해답』	金瓏承	1917	金瓏承家 광문사	
14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郭安連 편	1922	조선예수교서회	경희대 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개정재판, 1932)/연세대 학술정보원, 경북대 중앙도서관, 나사렛대 도서관, 세종대 도서관(정정재판,1934)/대구가톨릭대 중앙도서관, 한신대 중앙도서관(1936)
15	『미감리교회법전』	奇怡富 편집 E.M. Cable	1926	기독교창문사	
16	『원입첩경』	蘇悅道 Soltau, T.S	1933	조선 예수교서회	장신대 도서관

www.kci.go.kr

17	『죠션예수교쟝로회 신됴와 소요리문답』		1937	조선 예수교서회	

〈표 6〉 한국인의 저역서

No.	서명	저자	간행년도	출판·인쇄소	비고
1	『감리교회죠례』	F.E.C. Williams 안창호 공편	1908		연세대 학술정보원
2	『십계요해』	오긔션 편술 모리스 교열	1911	평양 태극서관 경성제2태극서관	연세대 학술정보원
3	『혼인론』	한승곤	1914	예수교서원 광명서관	
4	『만ᄉᆞ셩취(萬事成就)』	길선주 저술 기 일 고열	1916	광명서관	고려대 도서관/장신대 도서관
5	『예수의 교훈과 신자의 의무』		일제 강점기		필사본 한글
6	『보ᄇᆡ로온 말』	金二坤 편	1916	조선 예수교서회	연세대 학술정보원
7	『칠극보감』	宋麟瑞	1918	광문사	장신대 도서관(스크랜톤 저)
8	『금쥬미담』	Tinling, Christine 채성석	1923	조선 예수교서회	연세대 학술정보원

개항 후 개신교 선교사들은 활발한 문헌활동을 통해 서양기독교윤리사상을 전하고 이식하여 새로운 규범과 생활을 통해 문명개화로 이끌고자 했다. 내한 선교사로 문서사역을 하였던 벙커 선교사는 1903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제19차 조선감리회 연회에 「절제와 사회개혁 Temperance and Social Reform」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여기서 주일성수, 술의 사용, 결혼, 도박과 노름, 담배와 권련의 사용, 노예소유

www.kci.go.kr

등으로 이뤄진 규칙을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권장하고 술 · 담배 · 도박을 죄악시하는 청교도적 생활태도을 견지하고 노예 소유나 과부 매매 등을 야만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사회의 폐단을 나태와 놀고먹으려는 태도, 흐릿한 시간관념 때문이라고 보고 근면과 저축, 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런 주제는 저 · 역술하거나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전파하였다. 이들은 조선인 개인에게 윤리적,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 체화가 되면 외연으로 나타나 사회의 정돈, 자유, 부강 등 문명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된다고 보았다.[48]

이들도 초기에는 중국의 한역서양서를 도입하였다. 특히 올링거처럼 중국에서도 활동했던 선교사의 유입은 초기 문서, 문헌들을 서양식 인쇄를 통해 대량의 도서 확보와 독자의 탄생은 근대전환기의 문화적 변용을 가져왔다. 특히 서양기독교윤리사상에 대한 이식과 수용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위 〈표 4〉는 중국주재 선교사들의 책들이 유입되면서 선교의 목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양의 예절을 익혀서 서양과 교섭을 해야하는 관리들을 위해 학부에서 직접번역한 책들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한 선교사들이 기독교윤리에 기반 둔 신앙생활지침서를 번역하거나 소설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 서책과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공역한 사회윤리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5〉는 신앙인으로써 배우고, 지켜가야할 도리, 기본적 교리, 실천교리서를 중국에서 활동에서 활동하던 올링거 선교사의 책과 그 번역본,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초기 교리서와 헌법을 소개하고 있다. 〈표 6〉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인에 의해 『七克』이 『칠극보감』으로 번역되고, 십계명에 대한 이해, 혼인론, 금주,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해 다

48) 조현범, 위의 책, 157~162

www.kci.go.kr

룬 책들이 시대에 따라 전개된다. 〈표 4〉, 〈표 5〉, 〈표 6〉을 통해 중국주재 선교사들의 책들이 학부편집부에 의해 복각되거나 번역 출판되고,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선교사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기도 하며, 교리서 교육과 실천으로 교인을 만들어 가고, 한국인 스스로 새로운 윤리사상에 참여하여 이식된 것을 내면화를 통해 변용하는 모습을 추적할 수 있다.[49]

III. 나가는 말 - 아는 것과 보지 못한 것 사이

동아시아의 지식사회와 서양윤리사상 특히 기독교윤리사상과의 조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꼭 근대전환공간의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16세기 이래 동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파하러 온 선교사들의 고민이었다. 그들은 교리소개와 교육을 통해 기독교인을 만들어가고 그들의 의식과 생활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였고, 직간접인 전달(이식)을 통하여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기독교박물관 기독교자료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서양기독교윤리학이 조우하고, 기독교윤리의 한국적 수용 흔적을 추적하면서 결이 다른 두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 다른 층위의 서양기독교윤리사상이 나타나는 현장을 문헌분류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물론 저역서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풍부한 사례와 생생한 글들을 담아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장윤금 교수가 제언했던 것처럼 근대전환기의 우리사회를 이해하기위한 중요한 축으로써의 서양 선교사들의 다양한 아카이브를 디지털하고 허브를 구축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국기독교사상의 기본

49)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장형의『기독교윤리학의 한국적 수용과 정립』(북코리아, 2016)이 있다.

www.kci.go.kr

텍스트의 정본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사상사에서 16세기 이후 특히 개항이후 유입된 서양 프로테스탄트사상의 영향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렇게된다면 한국의 근대전환공간을 외래 사상의 이식, 갈등, 배척, 수용과 변용의 양태로 이어지는 이해하는 방법론으로써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를 발견할 수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고문헌 목록』,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05.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자료 해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근대의 기억, 신앙의 기록-예수교서회의 문서운동』,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15.

구스타프슨 J. M., 『신교와 구교의 윤리』, 김희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서울: 새문사, 2009.

김선희, "7장. 19세기 지식장의 변동과 문명의식 - 홍한주, 이규경, 최한기를 중심으로", 미야지마 히로시 · 배항섭 · 이경구 엮음, 『19세기 동아시아를 읽는 눈』, 서울: 너머북스, 2017.

김선희, 『서학, 조선 유학이 만난 낯선 거울-서학의 유입과 조선 후기의 지적 변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김선희, "지식의 중첩과 혼종－서학의 도전과 조선 지식장의 대응", 『제3회 숭실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숭실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2019.1.17.

김승혜, 『동아시아 종교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만남』, 서울: 영성생활, 1999, p.20.

南懷仁, 『교요서론: 18세기 조선에서 유행한 천주교 교리서』, 노영필 역, 서울: 한국사학, 2013.

박승찬,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에 대한 중세의 비판적 수용-토마스 아퀴나스의 주해서를 중심으로." 『중세철학』 제9호 (2003), 150-154쪽.

박천홍, 『활자와 근대－1883년, 지식의 질서가 바뀌던 날』, 서울: 너머북스, 2018.

박해남, "대한제국기 개신교 윤리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제81호 (2008), 6-7쪽.

백종구,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 『교회사학』 제1권 1호 (2001), 118~120쪽.

신하령, 「셩찰긔략」,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자료해제』, 서울: 숭실대학교

www.kci.go.kr

한국기독교박물관, 2007.
심현주,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기초』, 왜관: 분도출판사, 2009.
원재연, “정조대 처사 홍정하의 천주교리서 비판과 천주교 인식.”, 『동국사학』 제64호 (2018), 183~218쪽.
원재연, 「성세추요(盛世芻蕘) Ⅰ, 『부산교회사보』 제35호, 부산교회사연구소, 2002.7.
원재연, “조선후기 천주교 서적에 나타난 ‘良知說’에 대하여.” 『양명학』 제20호 (2008), 293~323쪽.
오지석, “한국기독교윤리학, 그 처음 이야기.” 『기독교사회윤리』 제15집 (2008), 199~221쪽.
오지석, “동서 기독교 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 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2011), 199~272쪽.
오지석, 『서양기독교의 주체적 수용과 변용-갈등과 비판을 넘어서』, 고양: 푸른영토, 2018.
육영수,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 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년대-1890년대.” 『역사민속학』 제55호 (2018), 111~157쪽.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와 근대서양의 재발견」, 『한국사 시민강좌』 37, 서울: 일조각, 2005.8.
이덕주, 『한국 기독교 정기간행물 100년』,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7.
이덕주, 『푸른 눈에 비친 백의민족』,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2008.
이장형, 『기독교윤리학의 한국적 수용과 정립』, 성남:북코리아, 2016.
李鍾國, 「韓國의 近代印刷出版文化 硏究」, 『印刷出版文化의 起源과 發達에 관한 硏究論文集』, 서울: (사)한국출판학회, 1996.
장윤금,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종보관리학회지』 제30권 4호 (2013), 265~281쪽.
정영아, “일본문학(日本文學), 일본학(日本學): 소창문고본(小倉文庫本)「천주십계(天主十戒)」 필사의 배경 -「셩찰긔략」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75권 2호 (2010), 361~378쪽.
조현범,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서울: 책세상, 2005.
한명근 외,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를 통해 본 근대의 수용과 변용』, 서울: 선인, 2019.

www.kci.go.kr

한미경 · 장윤금, “개신교 교육 선교사들의 편지(1885~1942)-북미 기록관 소장 현황.” 『人文科學』 제111집 (2017), 233~25쪽.

황종원 · 허재영 · 김경남 · 강미정,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지식과 사상』, 서울: 경진출판, 2019.

논문투고일: 2019년 7월 16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2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이 연구는 한국기독교윤리학에 대한 선행연구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기독교윤리관련 문헌들을 서지적 접근을 통해 자료 분류하고, 漢譯西學書와 韓譯西學書속의 西學倫理思想과 서양프로테스탄트선교사의 저술 및 번역서 속의 윤리에 관한 생각들(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흔적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과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답하면서 다양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의 지식사회와 서양윤리사상 특히 기독교윤리사상과의 조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꼭 근대전환공간의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16세기 이래 동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파하러 온 선교사들의 고민이었다. 그들은 교리소개와 교육을 통해 기독교인을 만들어가고 그들의 의식과 생활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였고, 직간접인 전달(이식)을 통하여 성과를 만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 메타모포시스의 양태가 나타난다. 한국기독교박물관 기독교 자료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서양기독교윤리학이 조우하고, 기독교윤리의 한국적 수용 흔적을 추적하면서 결이 다른 두 흐름 즉, 서학윤리학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있었고, 그 다른 층위가 서양기독교윤리사상에서 나타나는 현장을 문헌분류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주제어: 기독교윤리, 서학윤리, 근대전환공간, 문화의 메타모포시스, 번역, 이식, 한국기독교박물관

www.kci.go.kr